되어 있고 第三段地가 金堂址로 推定되며 礎石도 여기에서 出土된 것이다。第二段地에는 寮舍가 있었던것 같으며 井址가 남아 있고 第一段地에는 中門址가 아니었나 생각된다。

二、石 佛

寺址에 放置되었던 것을 現在는 公州博物館에 옮기여 保管中이며 如來坐像이 二軀、毘盧舍那佛이 一軀인데 佛像二軀는 首缺이고 座臺는 具備된 것이 一軀、其他 二軀는 一部分만이 남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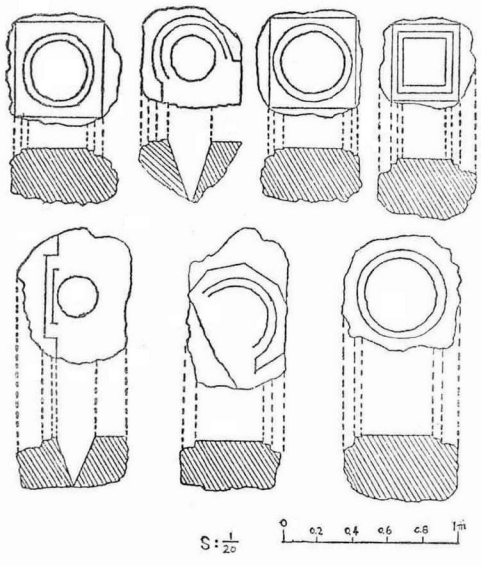
三、石 塔 部 材

石窟의 入口를 出入하는 階段石으로 利用된 것이 四個가 있고 昨年에 石窟登路에서 道路修理를 하다가 發見된 것이 一個 모두 五個가 남아 있는데 石塔의 基壇部材로서 重要한 資料인 것이다。

三、礎 石

金堂址에서 出土된 것으로서 거의가 다 柱座가 造出되었으며 其中 一個가 百濟礎石樣式을 간직하고 있다(圖面參照)。

四、瓦 類



孫秉憲實測製圖

推定 金堂址에서 發見된 百濟八葉蓮瓣瓦當과 唐草瓦、新羅統一期 十六瓣瓦當 및 高麗期의 瓦當等이 多數檢出되었으며 文字瓦로서 西穴寺銘 瓦片이 蒐集되어 寺名의 確定을 얻을 수 있는 것이 多幸이라 하겠다。

五、石窟

이 石窟은 自然的으로 이루어진 것을 利用하여 窟院修行을 한 것인데 窟內의 넓이가 約 五十坪가량 되며 窟內에는 佛像을 奉安하였던 臺層이 있고 石間에서 精水가 솟고 있다。石窟은 近世에 人工이 많이 加하여졌으며 基督敎禮拜堂으로 利用하고 있다。

仙巖寺의 獅子塔

崔 容 完

仙巖寺境內에 들어서면 바른편으로 浮屠의 一群이 있고 그 左端에 略 四*m* 높이의 「華山大師 舍利塔」을 본다。

華嚴寺 三層 四獅石塔이나 忠北 堤川의 獅子頻迅寺 石塔에 비교될만한 걸작은 아니지만 獅子塔들 中에 最末期的 特徵을 보이고 있다。

㊀모양으로 地臺石을 두르고 下臺石은 二十六*cm* 높이에 一四〇*cm* 폭의 一石으로 四方에 ㊀모양의 완자를 刻하고 그위에 四獅子와 立佛을 別個로 造成하여 前面二首와 立佛은 前面을 向하고 後面二首는 後面을 向하였다。獅子는 입이 길게 나오고 머리와 앞발이 過大하여 獅子라 하기보다 獅子를 상징한 動物의 形態이다。心柱의 位置인 中央에는 立像을 세웠는데 法衣는 두터웁고 바른손 팔목에서 염주가 내렸다。발아래는 다른 獅子像과 같이 板石이 있는데 머리위는 아무 장식없이 윗部材와 약간의 간격을 내었다。따라서 構造物처럼 느껴지지 않으며 結局 塔身部는 四獅子의 힘으로 받고 있다。甲石은 欄干을 刻하여 두르고 四面에 花葉을 刻하였다。欄干은 甲石과 一石인데 一面을 三間으로 나누고 연봉、팔모、사모로 모양을 이룬 童子柱를 세웠다。평도란의 中央에는 사모의 받침 童子柱를 받쳤고 이와 一石으로 屋身괴임을 浮刻하였는데 二重물당으로 위는 仰蓮을 아래는 伏蓮을 刻했다。初層屋身은 幅보다 높이가

龍仁 貢稅里 五層石塔

李 殷 昌

京畿道 龍仁郡 器興面 貢稅里를 찾으면 커다란 貯水池 東北岸인 塔洞部落에 逸名寺址가 있다。寺址는 앞에 넓은 湖水를 끼고 뒤에는 우거진 숲을 두어 自然風景이 아름다우며 아늑한 洞口안에 자리잡고 있으니 民家附近에는 礎石、築臺等의 殘石과 瓦片이 散在하고 있다。그리고 黃永洙氏家의 西便에 五層石塔 一基와 石佛座像 一軀가 있다。

石塔은 花崗石造로 雅淡한 모양을 한 中形塔인바 相輪部는 없어졌다。基壇은 重基壇인즉 菱角形과 直角形의 層級을 이룬 地盤石위에 基壇 약간 크고 隅柱는 흘림없는 四角인데 모서리를 죽였다。屋身前面中央에 「華山大師 舍利塔」 後面에 「京石工 黃大仁」이라 깊게 음각하였다。各層의 屋蓋石은 屋身石과 別石이며 四段받침으로 처마끝은 수직으로 끊었으며 四隅에 전곡이있어 오랜 手法을 보인다。三層塔身위에 露盤과 覆鉢을 두고 그위에 다시 작은 蓋石을 얹었는데 四隅棟끝에 隅花를 刻했다。다시 露盤 覆鉢을 얹고 그위에 연봉을 놓아 맞추었는데 연봉은 땅에 떨어져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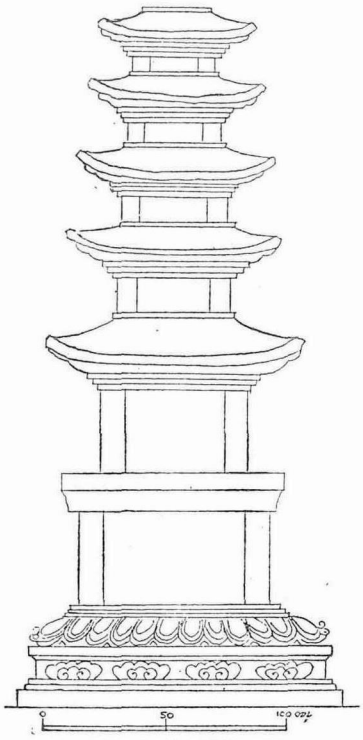
全體的으로 細長하고 基壇部가 약하여 安定感이 不足하다。彫刻手法과 樣式은 쇠퇴하여 빈약한 것이지만 그런데로 李朝末의 特性을 各部分에 나타내고 있다。

下臺中石과 甲石이 놓여 있는데 中石의 四圍各面에는 秀麗한 眼象을 四個씩 配置하였고 甲石上面에는 流麗한 伏蓮紋을 彫刻(總二十四葉)하였으며 四隅角에는 唐草紋式으로된 귀꽂을 彫刻하였으며 伏蓮紋안으로는 上基壇 中石을 받기 爲한 三層級의 「몰딩」이 表示되었다。이 甲石위에 長大한 上基壇이 造成되었으니 上臺中石은 四枚板石으로 짜이었고 四隅柱가 表出되었으며 이 上臺甲石으로 덮였는데 厚高한 一個石으로 下部는 灣曲線으로 處理하여 特異한 樣式을 보이고 있다。

塔身은 總五層이 完存하고 있으나 初層은 長大한 一個石으로 된 屋身이 놓였는데 四隅柱가 表示되었고 또 一個石으로 된 屋蓋石이 놓였는데 屋蓋表는 四區落水面이 緩漫하고 屋蓋裏는 三段級의 屋蓋石받침이 彫出되고 檐下는 曲線을 보이다가 四隅轉角에 이르러 强한 反轉을 이루었으나 鈍厚한 感을 주고 있다。二、三、四、五層의 塔身도 一個石으로 된 屋身石과 屋蓋石이 初層樣式과 같이 繼續되었고 二層以上은 漸次 短縮比例를 보이고 塔體의 安定感을 주고 있다。그리고 各層屋蓋石 頂上에는 다음 層 屋身石을 받기 爲한 層級이 造出되었다。

相輪은 없어지고 最上層의 屋蓋石頂上에 直徑 四㎝의 圓孔이 殘存하고 있어서 旣往의 擦竿과 相輪을 連想케 한다。

以上 記述한 此 貢稅里 五層石塔의 造塔樣式에서 다음과 같은 特異한



貢稅里五層石塔實測圖